■ 박근혜 대선 이끌 주요 기구 윤곽

김종인·안대희 '투톱' 朴心 보좌

〈국민행복특위장〉 〈정치쇄신특위장〉

대선기획단장 이주영·비서실장 최경환

내외인사 발탁 쇄신·조직안정 이중포석

김종인 위원장

안대희 위원장

이주영 단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선 본선을 이끌 주요 기구의 윤곽이 드러났다. 당의 쇄신을 예고하는 외부 인사와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내부 인사가 골고루 중용됐다.

새누리당은 27일 18대 대선 중앙선대위의 양대 핵심 기구가 될 국민행복특별위원회와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중앙선대위 구성 업무 등을 주도할 대선기획단장에는 4선의 이주영 의원, 공보업무를 총괄할 공보단장에는 김병호 전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박 후보의 비서실장엔 최경환 의원이 기용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인선엔 외부 인사로 정치·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내부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박 후보의 다중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특위는 박 후보의 국민대통합 정신을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에 기반해 세부 공약으로 풀어낼 위원회다. 이 기구의 수장을 맡은 김 전 수석은 1987년 개헌 당시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직접 입안한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김 전 수석의 재등장은 박 후보가 지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후 유지해온 경제민주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쇄신특위는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측근과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친인척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다. 이 위원회를 맡은 안대희 위원장은 대법관과 서울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다. 당은 안 위원장의 기용이 '박근혜 표' 정치쇄신을 모두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최근 친박 핵심으로 부상한 인물로, 지난해 말과 올 초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박 후보와 호흡을 맞췄다.

공보단장을 맡은 김병호 전 의원은 KBS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선캠프 공보위원을 지냈다. 박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최경환 의원은 친박 핵심 중 핵심 인사로,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선을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국민행복특위 공동 부위원장에는 진영 의원과 문용린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박민식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박종준 충남 공주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후보비서실 부실장에는 그간 비서실장을 맡아 온 이학재 의원이 기용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검찰, 해외출장 법사위원 동선 추적"

박영선 의원 '정치사찰' 의혹 제기

권 법무 "팩트주면 경위 알아보겠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이 본인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 등 정치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이 해외 출장을 갔는지를 대검 범정기획관이 왜 수소문 하고 다니느냐"라며 "법사위원들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그 동선을 범정기획관실에서 추적하고 있다. 그게 범정기획관이 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이 정보기관이냐. 검찰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도 그런 일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팩트(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기가.."라며 "구체적 팩트를 주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범정기획관실이 본인을 포함, 여야 주요인사와 검찰 심기를 건드린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검찰총장에게 일일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비공개회의 발언 등까지 파악한다고 한다"라며 "실제로 (검찰이 동선 파악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범정기획관실은 사회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회원들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안철수 내사설 단서 있으면 수사 검토"

권재진 법무장관은 27일 유력 장외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와 관련해 경찰이 사찰을 벌였다는 이른바 '내사설'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 "수사 단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이 경찰에 의한 불법사찰을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로선 언론을 통해 접한 것 이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고소 · 고발 등 구체적 수사 단서가 있거나 보도 경위 등이 정확히 파악돼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 수사와 관련, "개인비리로 축소하기 위해 부산지검에 배정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시작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규정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이 없도록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 대선 공보단 언론인 대거 투입

단장에 KBS본부장 출신 김병호 前의원…위원 5명도 전직 언론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단에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입' 역할을 하며 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맞서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언론인 출신 인사들을 뽑은 것이다.

공보단 단장에 선임된 김병호 전 의원은 KBS 보도국장 출신으로 박 후보 경선 캠프에서도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2년 8 · 8 보궐선거에서 부산진갑에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17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당에서 미디어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홍보위원장 등을 지내며 주로 공보 업무를 맡아왔다.

김 단장 이외에도 공보위원 9명 명단에도 언론인 출신이 대거 포함됐다.

현역의원의 경우 서울신문 정치부장 출신의 박대출 의원과 SBS 앵커 출신 홍지만 의원, 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서용교 의원이 선임됐다.

당협위원장 인사로는 정성근 전 SBS 앵커와 MBC 논설위원과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김석진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 KBS 기자 및 앵커, 대통령실 언론2비서관, 제1대변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낸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명됐다.

이밖에 공보위원들도 언론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공보 업무에 경험을 갖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공보과장을 지냈으며, 서용교 의원은 현재 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번 경선 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낸 백기승 위원은 대우그룹 홍보이사직을 거쳐 2007년에도 박 후보 경선 캠프에서 공보기획단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검사 출신인 정준길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석대변인을 역임한 적이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공천헌금 현영희 체포동의안 접수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3억 원의 '공천 뒷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현영희(61)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7일 현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 접수는 지난 22일 부산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9일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30일께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이후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國公認家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敎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硏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2012. 9.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2. 9.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 ·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수익11억
④ 25억=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가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경매투자 NPL물건 특수물건
1.경매 배우면서 낙찰받으실분!
특수물건/NPL물건만 전문 취급
교육비/입장 활동비 등 회비 550만원
2.매수 입찰 대리
정확한 권리분석 → 최저낙찰
빠른 병도 → 최상의 대출
임대 →매매까지
3.경매물건에 투자 하실분!
제1순위 근저당 으로 법적 보장
년 10~30% 최고의 수익률
단독/공동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